

주민친화적 문화공간 '문 활짝'

임실문화원 신축 개원... 맞춤형 문화시설 갖춰·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

임실군이 지역민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실문화원의 문을 새롭게 열었다.

임실문화원은 초현대식 주민친화적인 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거점 문화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29일 임실군은 심민 군수와 문영두 군의장을 비롯해 한완수 도의원, 최완 농업군지부장 등 기관과 사회단체장, 문화가족 및 지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문화원 신축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축한 임실문화원은 2014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으로 국비포함 40억여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1,67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40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해 상설·기획전시실, 소회의실, 향토사 자료실, 문예교실 등 맞춤형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넓은 주차공간과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은 물론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됐다.

임실문화원은 당초 임실종합경기장



29일 임실문화원 신축 개원식이 열렸다.

내에 위치해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군은 국비 등을 확보해 옛 임실경찰서 자리에 시설물을 재건축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시설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문화공간을 마련했다.

신축된 문화원은 강당과 강의실, 기획전시실, 문예교실 2곳을 갖췄으며, 일반인 및 단체가 미리 예약하면 체계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언제든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실문화원은 독립된 문화공간

으로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공연 등을 제공하고, 향토사 조사연구 등 임실 문화발전에도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임실문화원이 새롭게 꾸며져 있어 지어져서 그동안 문화생활에 다소 소외됐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라며 "누구나 문화혜택을 누리고, 농촌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혜택과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당뇨치유 1번지로 '눈도장'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열린 전국 당뇨캠프, 참가자들에 큰 호응 얻어

순창군이 당뇨 치유 1번지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군은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열린 2017 전국 당뇨캠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당뇨캠프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당뇨협회와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모인 당뇨환자와 전문 의료진 등 운영진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전국당뇨 캠프는 특히 순창이 전국 당뇨치유 1번지로 확실히 발돋움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실제 전국에서 모인 당뇨환자들은 그동안 순창군이 구축해온 힐링 인프라와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노하우에 크게 만족해 했다는게 (사)한국당뇨협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순창군은 건강장수연구소를 비롯해, 건강장수체험관, 식문화 학습관, 힐링요리 체험실, 숙박동 등 당뇨치유교육 관련 하드웨어 구축이 탄탄하다.

특히 민성질환 치유 사업을 군의 특화 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서울대



순창 건강장수 연구소에서 열린 당뇨캠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태초 먹거리학교 등과 다양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최고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한 점은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실제 이번 당뇨캠프에서도 전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등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과 치유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

의를 진행해 당뇨환자들이 당뇨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 밥상, 강천산 힐링 숲 걷기 체험, 운동요법 등 순창의 힐링자원도 교육 진행에 큰 도움을 줬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통장 문화학교 전국 확대 발판 마련

순창군, 성남시와 전통장문화학교 시범 운영

순창군이 전통장 문화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통장문화학교가 경기도 성남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29일 성남시 도초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60여명이 순창을 방문해 기능인들이 직접 담은 장아찌를 집밥을 먹고, 순창고추장, 된장, 간장 담는 체험을 1박 2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장문화학교는 성남시가 친환경급식 확대를 목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통장 담는 방법을 체험하고 우리 선조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에 담은 장은 학교급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운영되던 전통장문화학교의 전국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전통장문화학교는 순창군이 대를 이어 장을 담고 있는 순창의 기능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

자에게 제공하는 농업인 등 사람에 대한 가치와 농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능인들과 장을 담고, 친환경농장에서 상추 따기, 두부만들기, 발췌기와 순창의 다양한 산업자원과 농촌관광자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성남시와의 전통장문화학교 시범운영은 1인가구 증가로 혼밥, 혼술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있는 시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장류문화 교육을 통해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장 담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순창군은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아이들에게는 1년에 한번 있는 체험일지 모르지만, 순창에서의 소중한 추억은 향후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의 식탁을 바꿀 수도 있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청 국민인수위원회 접수 운영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제안 창구'가 남원에도 운영된다.

남원시는 새 정부에서 "국민들의 참여·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불만·제안 등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경청하겠다"는 취지에 제안 접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남원시청 민원실에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남원시는 이번 제안 접수 창구를 29일부터 7월12일까지 45일간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받은 제안은 매주 금요일 전북도청을 거쳐 국정자문위원회에 전달하여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발로뛰는 이동시장실 추진

남원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 29일 사매면을 방문하여 민원 사업 현장점검과 현안 사업장 등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투어는 2017년 시장설명회 시 사매면 주민이 건의한 숙원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련 부서장의 현장 설명과 토론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간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정~대울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위한 현지 점검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한 여름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휴식공간으로 운영중인 인화경로당을 방문하여 "무더위 쉼터"운영 점검과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수돗물 품질보고서 배포

순창군이 2016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만부를 제작·배포해 주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품질보고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에 읍면을 통해 배포했다. 이번 순창군이 배포한 품질보고서에는 군이 2016년 공급한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정수장과 마을상수도 별로 최대치와 평균치를 기재했다.

또 수돗물 공급과정, 수원의 수질정도,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 수돗물에 대한 상식, 수돗물 관련 문의 및 이상시 연락처 등 꼭 필요한 정보 등을 수록해 일반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의견문화제 등 지역축제 육성 강화

임실군이 대표축제로 손꼽히는 의견문화제 등 지역축제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임실군은 29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축제육성위원회와 의견문화제전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의견문화제 결산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과 '임실군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축제육성위원회(위원장 문운결)에서는 제전위로부터 위임에 처한 주인을 구하고 이름게 죽은 오수개의 회생정신과 역사적인 가치를 승화시켜 한국 반력계 문화를 이끄는 '제

33회 의견문화제'에 대하여 결산보고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열린 제33회 의견문화제는 지난 4일 오후 임실군 지사면에서 오수의 개 주인이었던 김개인 생가지 터 울림 행사를 시작으로, 7일까지 오수면과 오수의견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에서 2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견문화도시로 각광을 받았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이 참 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TEL : 063-653-5002
H.P : 010-6633-4070

타입 이 동 선
〈렌탈전문〉